

지하 642m, 30~40도 무더위와 사투 희망 캐는 '막장 아리랑'

화순탄광 초보광부 이성환씨의 하루

"우리는 매일 목숨 건 전투를 했다. 막장 속 더위는 살인적이다. 지하 700~1천200m 광산 막장 온도는 25~40℃. 땀에 젖은 팬티를 하루 다섯 번 이상 짜서 입었다. 막장에 자욱한 석탄가루와 돌가루가 생명을 위협했다..."

1960년대 독일로 갔던 광원들의 사연을 담은 '독일 아리랑'에 실린 막장 얘기가. 화순에도 막장에서 '희망'을 캐는 이가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복암생산부 소속 이성환(39·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에서 일한 지 10개월째인 이씨는 초보 광부다. 부인 김선화(39)씨의 남편이자 세 자녀(1남2녀)의 아버지 그는 가족의

끼니를 위해 30도를 오르내리는 막장에서 승고한 에너지 자원을 캐내고 있다. 화순광업소 복암생산부에선 '갑'을 2교대로 16시간 작업을 한다. 이씨는 '을반'(오후 4시~밤 11시)에서 탄을 캐내는 채탄작업을 맡고 있다. 이씨는 '인차'(광부를 실어 나르는 기차)를 세번 갈아 타고 지하 642m까지 내려가 후덥지근하고 비좁은 갱 안에서 꼬박 8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전혀 힘든 기색을 하지 않는다. 막장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다.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한 것을 포

함해 주유소 석유판매업, 건설현장 대리 등. 하지만 장기 불황 여파로 하는 일마다 번번히 실패했다.

가장으로서 좌절감도 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6일 지인의 소개로 화순광업소를 찾은 그는 실패를 떠올리며 다시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엔 남들처럼 광부로 일한다는 게 부끄러웠다. 남들에게 '막장 인생'처럼 비취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땀으로 일궈낸 '산업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절없는 생각은 사라졌다.

현재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럽다. 자녀 무상교육(대학교까지)은 물론 고액 연봉, 주5일 근무제 등. 장기불황 여파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이만한 직업도 없다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특히 작업환경



지난달 30일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복암생산부 갱 안에서 이성환(39·사진 오른쪽)씨가 채탄작업을 위해 인차에 오르고 있다. /위직탐기자 jrwi@kwangju.co.kr

경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엔 채탄에서 지상운반까지 거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했으나 최근엔 연층제준기(막장의 석탄을 버켓으로 굴착, 광차에 실는 기계와 장비), 착암기 등 사람 대신 기계가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씨는 요즘 사는 게 즐겁다. 주말마다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갈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매일 한 두시간씩 짬을 내서 광산보안기사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고 있다. 자신의 현 위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리

자로서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기 위해서다. 이씨는 "그래도 이곳이 공사(公社)사다. 요사이 취직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자리가 나면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꽤 많다"며 "막장인생은 없다. 막장에서도 뜨거운 희망을 캐내고 있는 전문 직업인 광부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탄은 일단 제 목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안도현 시구처럼 이씨도 다시 가슴 뜨거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에 이상욱씨 선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갖고 이상욱(사진) 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행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지난달 2일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직원 3명, 시 교육청 1명, 민간추천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지원 증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관련 실과의 사전협의', '다문화가족 내 양극화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해상서 선박 충돌

지난달 30일 밤 9시20분께 무안군 청계면 북길리 선착장 앞 북서쪽 1km 지점 해상에서 1.85t급 소형 선외기 소형호(자랑양)와 0.69t급 어선 평화호(연승양)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평화호가 침몰해 배에 타고 있던 함모(60)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부인 김모(여·58)씨는 우측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광주 삼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또 사랑호에 타고 있던 송모(여·47)씨는 뇌진탕을 입어 목포 한국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남편 권모(57)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현란한 오토바이가 좋아" 도둑질

○현란한 조종과 음향증폭기가 부착된 다방종업원의 오토바이를 훔친 '철부지' 10대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일 고향 친구들과 짜고 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간 김모(19·광주시 북구 우산동)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모텔에 주차된 다방종업원 김모(21)씨의 오토바이(125cc)를 훔쳐갔다가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히는 바람에 탈피.

○김군 등은 "다방종업원의 오토바이에 달린 음향증폭기와 스피커, LED 전구 등이 탑이나(우리 오토바이에) 옮겨 설치하려고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혼 꿈' 깬 여행사 대표

해외 신혼여행 상품 계약금 수역 갖고 튀어

광주의 한 여행사 대표가 예비 신혼부부 수십 쌍과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뒤 수익원의 대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1일 권모(31)씨 등 예비 신혼부부 10쌍이 '광주지역 H여행사 대표 김모(35·광주시 북구 각화동)씨가 신혼여행 대금을 받아 쟁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필리핀 보라카이나 유람 등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약, 1쌍당 400만~600만원(총 5천여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으나, 이 회사 대표인 김씨가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여행사에 해외 여행을 예약한 신혼부부는 확인된 것만 쟁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고소장에

H여행사는 대표 김씨와 여직원 1명 등 2명이 운영을 해왔으며, 광주시 동구 불로동 A웨딩숍 등을 통해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령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담수가 인근 웨딩숍에서 소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웨딩숍과 김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국 유일 '無辯村' 장흥에 변호사 입성

전국 유일의 '유관무변촌(有判無辯村)'은 있지만 변호사는 사지 없는 지역'인 장흥에 10여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이 개소돼 관할 민원인들의 법률 소외감을 덜게 됐다.

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21세기' 장흥분사무소와 변호사 김명운 법률사무소가 오는 7일과 8일 각각 장흥군 장흥읍에 문을 연다.

21세기 장흥분사무소에 주재하게 된 권정식(68) 변호사는 사시 16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 뒤 광주지법 목포지원장과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운(48) 변호사는 사시 35회 출신으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대한 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에서 활동해 왔다. 장흥은 지난 1996년 김 철 변호사 이후 변호사의 맥이 끊겼으며,

장흥과 강진 등 관할 지역 주민들은 인근 시·군이나 광주 등을 오가며 송사를 진행해야 했다. 노영대 광주변호사회 회장은 "늦게나마 장흥, 강진지역 주민의 법률 소외감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무변촌'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동구 구민 한마당

1일 광주시 동구 용산동 용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4회 광주시 동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주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동구인상 시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사청탁·공사수주 대가 챙긴 혐의 진도군수 등 4명 기소

검찰이 인사 및 공사비리 등의 혐의로 박연수(61) 진도군수와 공무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일 인사 청탁과 공사 수수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공사 업자 문

모(52·구속)씨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육관' 등의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군수는 또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청 공무원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승진과 일반직 특채 대가로 2천7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박 군수의 지인인 모 문중 전 중

친회장 박모(70)씨를 통해 박 군수에게 청탁을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박씨와 승진 청탁을 대가로 박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진도군청 5급 공무원 이모(53)씨 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씨 등으로부터 승진과 정면 특채 대가로 7천2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500만원은 자신이 갖고 4천700만원을 박 군수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 54회 호남예술제 성악 초등 입상자

- <심사위원>
임영만 교수(호남신학대)
강숙자 교수(전남대)
이은철 교수(전남과학대)
김남경 교수(송원대)
김철용 교수(목포대)
- 1·2학년**
- ▲최고상
68 박한빈(광주미산2)
▲금상
55 선요원(광주학운2)
66 박주연(살레시오2)
91 고원정(광주미산2)
▲은상
12 박수연(살레시오2)
17 조성은(살레시오2)
39 김 승(광주금당2)
40 박효진(살레시오1)
44 박지현(광주송원2)
52 조 은(만호1)
54 한여원(광주송원2)
82 임나영(유안1)
87 한동우(월보2)

- 89 강민호(광주불로2)
▲동상
11 김태현(광주대봉1)
15 박경현(광주송원2)
23 전건일(광주불로2)
27 이지솔(살레시오2)
29 김태윤(중앙2)
47 조유진(광주불로1)
50 정문경(광주송원2)
59 김재혁(중앙2)
61 오동현(광주삼육2)
65 노윤아(광주송원1)
74 김시은(광주효덕1)
77 김영현(만호2)
84 김수민(광주불로1)
86 정유진(광주불로1)
90 민다원(광주불로1)
95 한승민(살레시오2)
- 3·4학년**
- ▲최고상
42 손영호(광주울곡4)
▲금상
6이유미(선창4)
24 이가현(진월4)

- 33 이예빈(광주대성4)
81 최예민(살레시오3)
83 강민서(살레시오3)
84 황현웅(광주송원4)
▲은상
8 옥시원(광주삼육4)
17 이강욱(광주송원4)
19 서예설(운리4)
21 박지환(광주송원4)
27 고해림(광주송원4)
28 신우선(광주불로3)
29 김보라(수원4)
35 이지연(운리4)
38 최하민(산월3)
47 이지민(광주불로3)
▲동상
3 구예민(수문3)
7 김유민(광주삼육3)
11 이수윤(치평4)
12 조민재(광주불로3)
40 성주희(광주송원3)
41 이다연(순천왕지4)
43 이지우(광주금당3)
45 김민석(광주송원3)
53 장한나(광주송원4)
55 이정아(광주신암3)

- 57 박유민(광주송원4)
59 이진우(목포용해4)
65 조수희(광주금당4)
68 김선경(광주계림4)
71 최세영(광주불로3)
73 김도진(광주송원3)
79 주수영(유촌3)
89 이해음(살레시오3)
95 박수빈(살레시오3)
- 5·6학년**
- ▲최고상
13 박동진(송정동6)
▲금상
2 김건희(제석6)
20 이화선(광주신암5)
36 정서현(유안5)
41 박준석(운리5)
61 김경은(광주남6)
64 이하림(광주울곡6)
▲은상
14 이형아(진민5)
18 성유승(문봉6)
35 박찬규(살레시오5)
39 한제우(월보5)

- 45 주수환(유촌5)
46 조재윤(광주학운6)
47 노유민(선창5)
48 양세미(문산5)
63 이윤혜(광주송원6)
71 신미선(광주대성5)
▲동상
1 나세영(계수5)
6 우혜린(본촌6)
7 추영주(수문6)
15 김지호(무등5)
16 김재나(광주금당6)
17 김선희(광주미산5)
23 이예나(운리5)
25 배서연(광주신암6)
34 김수진(만호5)
37 이시은(진월5)
56 송은지(광주송원6)
67 김여경(진남5)
70 최수현(유안6)
-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사진 2매를 5월 8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1분 / 해질 19시 19분 / 달뜨기 12시 18분 / 달지기 01시 30분

빗방울 '특목'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3/21℃
목포	흐리고 한때 비	13/19℃
여수	흐리고 한때 비	13/17℃
완도	흐리고 한때 비	13/20℃
구례	흐리고 한때 비	10/23℃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3/19℃
장흥	흐리고 한때 비	13/19℃
고흥	흐리고 한때 비	11/19℃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2/20℃
영광	흐리고 한때 비	11/20℃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3/20℃
전주	흐리고 한때 비	13/21℃
남원	흐리고 한때 비	11/22℃
옥산도	흐리고 한때 비	13/17℃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목포 07:58	00:18
연안 앞바다	남~남서	1.5~2.5m	목포 20:17	13:3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03:01	09:34
연안 앞바다	남~남서	1.0~1.5m	여수 15:45	21:3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2	11/24	10/25	11/26	12/27	13/28